

‘존중’이 오가는 백화점 만들기 고객의 약속



신용카드에 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.
우리의 약속을 서비스·판매직에
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보여주세요!

 Womenlink
한국여성민우회 T. 02-737-5763

지 원  아름다운재단
The Beautiful Foundation

디자인 윤나리 yoonari.com

서비스·판매직 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백화점에는 ‘사람’이 있다

재고를 가지러 간 노동자를
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. 

노동자에게 ‘존중의 말’을
사용하겠습니다. 

우리는 서로에게 ‘좋은 사람’이
될 권리가 있습니다! 

서비스·판매직 노동자는
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
기억하겠습니다. 

 반품·환불 규정을
잘 숙지하고,
합리적인 요구를 하겠습니다.

 서비스를 받을 때
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.

 불필요한 스킨십을
하거나 언어 성희롱을
하지 않겠습니다. 

계산할 때 카드와 돈을
툭 던지지 않겠습니다. 